

Q2 | 산불이 산림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A 산불이 나면 산림생태계가 급속하게 황폐화됩니다. 도시가 사람의 주거공간이 라면 산림은 많은 동식물의 서식처로, 산불은 이러한 서식처를 순식간에 파괴합니다. 가장 먼저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토양의 영양물질도 불에 타면서 산림의 생산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아울러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면서, 이산화탄소 흡수기능을 담당하는 산림이 반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또한 토양을 보호하는 나무와 낙엽 등이 불에 타 사라지면서 비가 조금만 와도 토사가 유출되어 산사태·홍수와 같은 2차 피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산불 피해지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내에 있거나 근접할 경우, 소나무류 산불 피해목은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의 서식 및 산란처로 기능하여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의 밀도를 증가시켜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산불 피해 후 2년간 솔수염하늘소의 밀도는 산불 미피해지 대비 10배(산불피해등급“경”지역) ~ 14배(산불피해등급“심”지역)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이듬해에는 산불 피해 당해연도 대비 솔수염하늘소의 밀도가 3배(산불피해등급“심”지역) ~ 13배(산불피해등급“경”지역)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